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THE PARENT INFLUENCE ON STUDENT'S TEST ANXIETY

김 문 주* · 이 혜 성*

Moon-Joo Kim.* Hye Sung Lee*

요약 : 시험불안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자율-통제, 수용-거부, 보호-방임, 성취-안일)와 자녀의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보기위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한 시험불안도 진단검사(TAI-K)와 연구자가 작성한 자녀용 부모태도 진단도구를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남,녀학생 481명과 중, 고등학생 500명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는 시험불안과 정적 상관($r=.25 \sim .29$)이 있으며,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부적 상관($r=-.15 \sim -.2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태도에 따라 각 집단별로 그 시험불안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국민학생, 중, 고등학생 모두에게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태도는 높은 시험불안을 불러 일으키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는 자녀가 낮은 시험 불안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05$). 그러므로 자녀가 무조건 좋은 시험결과를 가져오도록 기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의 시험불안은 높아지게 되므로, 자녀의 능력을 고려하고, 격려해주는 부모들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서 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여러차례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학업에 대한 성취능력을 평가받기도 하며, 또 다른 학생들과 비교, 경쟁을 해보기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한 경쟁을 경험하거나, 주위로부터 자신의 능력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기대를 받는다면, 시험이 두려워지고, 가능하면 회피하려 할 것이다.

시험불안은 불안의 한 형태로서, 시험이라는 상황이 위험적이라고 지각되었을 때, 신체적 증상을 수반하며 나타나는 긴장상태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Liebert와 Morris는 1967년 Sarsason의 Test Anxiety Scale(TAS)의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사람은 시험상황에서 정서적인 홍분과 동시에 직접 시험사태를 인지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발표한 후 이 감정적 요소(Emotionality : E)와 인지적 요소(Worry : W)는 시험불안의 두 구성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는 시험에서의 실패 가능성, 그로 인한 걱정, 타인과의 비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낮은 자신감, 과제와 관련없는 부적절한 생각에 대한 통제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E는 땀이 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또 소화가 잘 안된다, 괜히 안절부절 못한다등의 실제적인 시험상황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정적 반응들로서 시험 때 이 두 요인은 달리 나타나며,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Deffenbacher 1980).

시험준비중이거나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런 긴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시험문제해결과 각설 관련 없는 생각을 하거나, 시험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하게되어 자신이 갖고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며(Wine 1980 ; Spielberger와 1978, 1980등). 시험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충분히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귀인시하지 않으면서, 시험에 실패했을 경우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다음 시험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Wine 1980). 그러므로 시험불안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시험불안의 발달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주로 환경과의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Sarason(1971)은 시험불안이 나타나는 데에 가정에서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60년대 연구들은 거의 이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Trudewind(1975), Krohne, Rogner & Schaffner(1980)등의 연구를 위시하여 그 이후의 연구들은 시험불안을 야기시키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학교환경을 들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가정, 특히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만 국한시켰다.

이론적 배경

1. 시험불안의 발달

시험불안이 어떻게 발달해가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이론이 있다

Sarason(1971)에 의하면, 시험불안은 가정내에서, 특히 부모-자식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클 때, 부모는 자신의 기대수준에 의해 자식을 판단하게 되고, 자식이 이루어 놓은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부모의 기대를 이를 수 없는 자식은 자신을 비하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또 부모에게 적대감을 갖게되며, 이 적대감에 대한 부모의 보복을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켜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부모-자식관계에서 자식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 불안을 일으키게 되어 시험 불안은 이미

취학전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점차 정착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높은 시험불안을 갖고 있는 아이는 평가상황에서 부모등 어른들의 도움에 많이 의존하고, 그런 도움이 없으면 평가상황을 자꾸 회피하려 한다.

Meyer(1973)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위한 교육을 너무 이르거나, 늦게 시작하면 자식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되며,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높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Spielberger(1978)의 상태-특성불안 모형에 의하면, 시험불안이란 개인이 시험상태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여기에는 개인이 시험 때 갖는 홍분, 두려움, 걱정, 또 시험을 통해 얻는 이전의 경험등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개인이 시험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여러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시험상황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실패를 지나치게 방어하며, Self-esteem이 낮아져 다음 시험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 및 극복 방안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개인의 특성불안이 함께 작용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시험상태를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R Schwarzer(1981)는 개인과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다시말해서, 부모나 교사등 주위에서의 기대가 클 경우 시험을 더 두려워하게 되며, 시험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실패경험은 계속하여 다음 시험에서의 실패를 낳게 된다. 또 주위나 비교집단과 자신의 능력간에 차이가 클 경우 학교상태는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일련의 실패나 좌절의 경험이 시험불안을 더욱 발달시킨다.

종합하여 볼 때, 시험불안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 학교, 사회의 기대수준, 시험결과에 따른 사회적 안정, 비교집단의 영향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환경으로서 그 구성원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험불안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과정에서 학생들을 면담하는 중, 그들이 학교생활이나 시험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상당부분이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예비검사에서도 이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즉 그들이 시험이나 그 결과에 관련하여 우선 생각하는 것은 교사, 친구, 학교 분위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보답, 책임의식, 두려움, 죄의식과 시험결과로 인해 부모와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회적인 인식등이라는 것이다(표 1 참조).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험불안 수준 및 발달을 설명하는데는 가정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녀의 시험불안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 Horney와 Sullivan등은 불안이 어릴 때 가정에서의 사회화 과정 중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결여와 관심부족에 의해 생겨나는 성격 특성으로 보았으며, Carroll(1969)은 자녀의 정서적 불안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모로부터의 배척을 들고 있다. Krohne와 Schaffner(1980)는 부모가 자녀를 과잉 보호하거나, 자주 심한 벌 등을 사용하며,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자녀의 불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실제로 9~13세의 남녀 학생 358명을 "Osnabruecker Erziehungsstil Inventar"로 진단한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는 자녀의 불안과 부적상관이고($r = - .26 \sim -.32$),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과제 수행에 대한 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으로 나타났다($r = .27 \sim .69$) (Krohne, Rogner & Schaffner, 1980). 이 밖에도 부모가 자녀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녀의 불안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유경희(1978)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정원식의 "가정환경 진단검사"와 Sarason의 Test Anxiety Scale for Children(TASC)을 실시하여, 가정환경과 자녀의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 결과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회적 상승을 강조하고, 형제간의 경쟁이 심하거나 응집성이 낮은

표 1. 예비 검사에서 나타난 문항별 응답 결과

국민학교(N=597)			중·고등학교(N=600)			
순위	M	SD	문항 내용	순위	M SD	
1	3.75	.65	시험 볼 때면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다	1	3.58 .76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2	3.73	.67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2	3.02 1.10	시험을 안보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3	3.71	.63	좋은 점수를 받아 부모님께 칭찬을 받고 싶다.	3	2.99 1.06	시험때문에 더 이상 피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	3.00	.98	시험지를 내고 난 후에도 점수 때문에 걱정이 된다	4	2.92 1.04	시험에 떨어지거나 성적이 나쁘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 들에게 창피하다.
5	2.81	1.10	시험때 많이 틀리고 오면 부모님께 애단을 맞을까봐 걱정이 된다.	5	2.89 1.09	못하는 과목 일수록 시험때 더 걱정이 된다.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의 시험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물질지향적인 경향은 여자아이들에게서만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학생의 불안수준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이좌찬(1987)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는 시험과 관련해서 성취, 개발, 친애,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r = -.15 \sim -.22$), 이런 태도는 자녀의 학력교사 성적과 정적 성관을 갖고 있다($r = .12 \sim .34$)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생활수준(상: 중: 하)이 자녀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Spielberger의 Test Anxiety Inventory(TAI)의 한국판을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학생(인문, 실업, 세육)학생 497명에게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정의 생활 수준에 따라 자녀의 전체 시험불안도와 W요인 상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전체 시험불안과 W요인의 점수가 높아지며, 그 차이가 의미 있으나, E요인의 점수에서는 그 차이가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주, 1988). 이는 가정의 생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에따라 자녀에게 기대되는 성취수준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자녀들이 성적에 대해 더 큰 압박을 받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시험불안은 높아지게 된다. 또 잦은 헐책과 별,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심한 통제등은 불안한 성격을 가져오며, 이런 불안특성은 Spielberger등(1978)에 의하면, 시험과 관련된 사태를 더욱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여, 높은 시험불안을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 시험결과에 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그들이 자녀가 학교나 입학시험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장래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 자녀의 시험불안 수준은 높을 것이라 짐작된다.

연구방법

1. 대상

서울 시내의 국민학교 4, 5, 6학년 학생 300명과

표 2 조사대상 학생의 수와 그 구성

	국민학생	중, 고등학생
남	253	205
여	228	295
계	481	500

중학교 1학년 212명, 고등학교 1, 2학년 3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그 중 실제 이용한 사례 수는 아래와 같다(표 2 참조) 실시는 1990년 6~7월중에 수업시간이나 자유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이나 담임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

우리 나라 학생들을 위한 Test Anxiety Inventory(TAI-K)(김문주, 김재온, 인쇄 중)와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진단을 위한 도구(표 3 참조)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대처를 진단하기 위해서 가정의 환경을 설명하는 주된 변인으로 Schaefer(1959)와 정원식 등(1989)이 제시한 자율-통제, 수용-거부, 보호-방임, 성취-안일의 8측면을 택하여, 각 측면마다 기준 연구에서 이미 검증, 사용되었던 문항을 5개씩 본 연구자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부모의 태도를 부모자신이 직접 판단하는 것과 자녀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르며, 실제 자녀들이 시험사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아(Schaefer 1965), 본 연구에서는 자식이 보는 관점에서 부모의 태도를 “예” 또는 “아니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gamma = .71 \sim .86$), 이 때 양쪽 부모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교육에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편의 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답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해석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시험불안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해 보았다(Pearson 계수).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시험불안은 국민학생이나 중, 고등학생 간에 차이는 있으나, 부모의 태도를 자

표 3. 부모태도 진단을 위한 도구 문항

<p>자 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가치있는 존재임을 알게함 - 다양한 활동을 하기를 원함 -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줌 -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를 원함 - 내 장래에 대해 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함 	<p>통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따르기를 원함 - 친구나 외출, TV시청등을 제한한다 -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기를 바람 - 나의 행동에 일일히 간섭함 - 잘못된 일에는 심하게 야단 침
<p>방 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일을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둠 - 자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자식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또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 자식의 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음 -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상관 않음 	<p>보 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히려 자신이 신경과민이 될 정도로 성적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줌 - 항상 있어서 보살펴야만 마음을 놓음 -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일도 안 시킨다 -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참견함
<p>수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 - 자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조성 - 일의 결과보다 노력해온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 - 잘못했을 경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 이름 - 자식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줌 	<p>거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면 싫어함 - 잘한 일에 칭찬은 없어도 잘못한 일은 혹독하게 야단침 - 자식에 대해 쌀쌀하고 냉담한 - 무엇을 여쭤봐도 짜증을 내고 대답을 잘 안해줌 - 자식의 요구를 묵살한다
<p>성 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함 - 꼭 좋은 학교에 가야한다고 강조함 -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기대 - 예사에 완벽하며 학교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 오기를 바람 - 다른 집 공부 잘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비교함 	<p>안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함 - 그냥 남들처럼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함 - 문제를 일으켜도 그저 자랄때 과정이라고 생각함 - 문제아들의 일을 그냥 남의 일로 간주함

표 4. 부모태도와 시험불안과의 관계

	자율	통제	방임	보호	수용	거부	성취	안일
시 국민학교 험 N=481	-.20		.17		-.19	.29	.17	
불 중. 고등 안 N=500			-.16			-.15	.25	
(p<.01) *r<.15과 그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생략.								

표 5. 국민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태도에 따른 평균시험불안도(N=481)

부모태도	N	N in %	M	SD
자율	4	8	66	16.4
통제	3	6	60	18.6
방임	—	—	—	—
보호	2	4	34	6.4
수용	78	16.3	54	12.7
거부	9	1.9	72	11.6
성취	176	36.7	60	14.1
안일	207	43.2	58	14.5

ANALYSIS OF VARIANCE

	df	SS	MS	F
집단간	6	5017.8178	836.3030	4.234
집단내	472	93234.1011	197.5299	
전체	478	98251.9210		

표 6.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태도에 따른 평균시험불안도(N=500)

부모 태도	N	N in %	전체시험불안		W		E	
			M	SD	M	SD	M	SD
자율	2	.4	64	19.8	30	20.0	34	9.2
통제	4	.8	71	20.0	34	7.0	27	12.4
방임	1	.2	59	—	15	—	18	—
보호	2	.4	81	14.8	43	12.7	28	.7
수용	49	9.8	68	15.9	35	8.9	26	6.0
거부	6	1.2	85	14.4	40	9.0	33	4.7
성취	135	27	82	19.5	40	8.8	32	9.3
안일	301	60.2	76	20.0	36	9.7	29	9.1

ANALYSIS OF VARIANCE

	df	SS	MS	F
T	집단간	7	10559.0568	508.4366
	집단내	492	185980.7924	378.0097
	전체	499	196539.8438	
W	집단간	7	2789.2874	398.4696
	집단내	492	43046.4420	87.4928
	전체	499	45835.7805	
E	집단간	7	1489.0603	212.7229
	집단내	492	38767.8174	78.7964
	전체	499	40256.8789	

* P=.0003, ** P=.0001, *** P<.01

표 7.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 고등학생들의 시험불안도 간의 유의도

요인	전체시험불안			W요인			E요인			
	집단	수용	성취	안일	수용	성취	안일	수용	성취	안일
수용										
성취	"			"			"			
안일	:			:			:			
($p < .05$)										

신에게 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자녀들의 시험불안과 정적 상관을,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부적 상관을 갖는다. 그 뒤에 국민학생들의 경우는 부모의 방임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태도와 정적 상관을 갖고 있다.

이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불안도를 부모의 태도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부모의 태도는 8개의 각 측면마다 3번이상 “예”라고 답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통계처리는 One Way Scheffe($P = .05$) 검증을 통해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6과 같다.

결과를 보면, 자신의 부모의 태도를 안일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특히 중, 고등학생들에게서 그 수가 더 많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에 관여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닌가 본다. 다음으로는 성취지향적, 수용적이라고 보는 학생이 많았으며, 국민학생 중에서 자신의 부모태도가 방임적이라고 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학생들의 시험불안도는 국민학생, 중, 고등학생 모두에서 부모의 태도를 거부적으로 판단한 집단의 평균 시험불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학생들의 경우 수용적인 부모, 중, 고등학생의 경우 방임, 자율, 수용적이라고 본 학생들의 시험불안도가 낮았다. Variance Analysis 결과 각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leq .05$). 그러나 Scheffe 검증 결과 국민학생들의 경우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시험불안도와 W요인 점수에서 수용-성취 집단 간에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Scheffe 검증방법이 사실 매우 conservative 한 데다 집단의 수가 많아서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고, 구성원의 수가 적은 집단을 제외한 세 집단간의, 다시 말해서

부모의 태도를 수용, 성취, 안일하다고 판단한 집단들 간, 시험불안도의 차이를 다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국민학생들의 경우 수용과 성취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leq .05$), 중, 고등학생의 경우 표 7과 같이 W와 E요인 점수, 전체 시험불안도가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자신의 부모태도가 성취지향적이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시험불안이 수용이나 안일로 판단하는 학생들의 것보다 훨씬 높았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의 능력이나 입장 이해해주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성적 등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만을 기대한다면 자녀의 시험불안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해 기대가를 수록 자녀의 불안이나 시험불안이 높아진다는 다른 연구결과가 다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유경희(1978) :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좌찬(1978) : 시험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학생의 불안수준 및 학업성취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원식 · 이상로 · 이성진(1989) : 현대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Carroll HA(1969) Mental hygiene : The dynamics of adjustment,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5th Ed.
- Deffenbacher JL(1980), Worry and emotionality in test anxiety. In : I.G.Sarason(Ed), Test anxiety, Hillsdale, NJ : Erlbaum, pp111-128
- Kim MJ(1988), Pruefungsangst und andere psychosoziale Merkmale. Dissertation der Philosophische

- Fakultaet der Universitaet Duesseldorf
- Krohne HW & P Schaffner(1980)**, Anxiety coping strategies and test-performance, Psychologische Forschungsberichte aus dem F13 der Universitaet Osnabrueck, 19
- Krohne HW, J Rogner & P Schaffner(1980)** Erziehungsstil-Skala zur Ueberpruefung des Zweiprozess-Modells elterlicher Erziehungswirkungen, Zeitschrift fuer Entwicklungspsychologie und Paedagogische Psychologie 12 : 233-253
- Liebert RM & LW Morris(1967)**,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Psychological Reports 20 : pp975-978
- Meyer, WV(1973)** : Leistungsmotiv und Ursacheninterpretation von Erfolg und Misserfolg, Stuttgart ; Klett
- Sarason SB, KS Davidson FF Lighthall, RR Waite & BK Ruebush(1971)**, Angst bei Schulkindern, Stuttgart : Klett.
- Schaeffer, ES(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6, pp413-424.
- Schaeffer(1959)** :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pp226-235.
- Schwarzer R(1981)**, Stress, Angst und Hilflosigkeit, Stuttgart : Kohlhammer.
- Spielberger CD(1980)**, Preliminary Professional Manual for the Tes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 Spielberger CD, HP Gonzales, CJ Taylor, WD Anton & B Algaze(1978)**, Examination stress and test anxiety. In : C.D. Spielberger & I. G. Sarason (Eds.), Stress and anxiety, Washington : Hemisphere, Vol 5 : pp167-191
- Trudewind C(1975)**, Haeusliche Umwelt und Motiventwicklung, Goettingen : Hogrefe
- Wine JD(1980)**, Cognitive-attentional theory of test anxiety. In : I. G. Sarason (Ed), Test anxiety, Hillsdale : Erlbaum pp349-385

ABSTRACT —————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2 : 24~31, 1991 —————

THE PARENT INFLUENCE ON STUDENT'S TEST ANXIETY

Moon-Joo Kim Ph.D., Hye Sung Lee, Ph.D.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It has long been accepted that test anxiety is developed by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rent influence on student's test anxiety. The Korean Form of Test Anxiety Inventory(TAI-K) and the Parent Attitude Scale were used. 481 primary school-and 500 high school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 1) The parental factor identified as "reject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udents' test anxiety, while the parental factor identified as "rearing as self-controlled be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 2) The students who identified their parents as "being achievement-oriented"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test anxiety than those who identified their parents as "accepting".

Many studies also report that high test anxiety interferes with student's performance. Therefore, parents should accept and understand their children in order to alleviate test